세계불교敎皇 대관식 부처님 탄생지 네팔 룸비니 동산에서 봉행



△ 세계불교교황 대관식 식전행사에 참석한 사부대중 모습

한국대표단 30여명 스님, 세계각국 대표 500여 스님들과 1천명 불자들 동참

네팔 룸비니와 한국에 세계불교교황청 설립, 세계불교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

세계불교교황 대관식이 12월 3일 부처님의 탄생지 룸비니동산에서 성대하게 봉행 되었다. 이 대관식은 세계불교승가재단 주최 행사로 세계 각국 대표 500여 스님들과 1천명의 불자들, 한국대표단 30명 스님 외 4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하여 원만 회향 되었다. 세계불교교황 선출은 세계 각국 고승 33인의 추천을 받아 최종적으로 덕망과 지혜가 남달리 뛰어난 한국 석가산스님을 세계불교 교황으로 추대하게 된 것이다. 이는 부처님의 정법이 세계로 널리 펼쳐지고 세계불교중흥과 원융화합이 되는 기틀이 되어 불국토가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세계불교 초대교황으로 등극한 석가산스님은 기미년 3월 1일 독립운동의 민족대표로 건국훈장을 받은 백용성 조사의 은·법·강·율맥을 이어 받은 손상좌이다. 기사년 11월 3일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선구자로 독립유공자 표창을 받은 봉암개사의 은·법·강·율맥을 이어 받았다. 또한 스님은 1994년 1월 30일 스리랑카(Sri Lanka) 불치사에서 스리랑카 삼개 종파 만장일치로 성인으로 추대되기도 하였다. 석가산스님의 수행정진은 널리 알려져 있다. 세계불교 최초로 대방광불화엄경 80권을 두 번 사경하여 원만 회향 하였고, 근래에는 세 번째 대방광불화엄경 80권을 사경 정진 중에 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삼 천년 만에 처음으로 네팔 룸비니에서 2019년 12월 3일 세계불교 초대 교황 대관 대전에서 초대 교황으로 석가산스님이 등극하게 된 것은 세계 불교사의 새로운 역사의 장이며 한국 불교사에 길이 남을 큰 법연일 것이다.

세계불교 초대 교황 석가산스님은 축하메시지에서 "평화와 행복은 하루아침에 창조되는 것은 아니나, 하루아침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평화는 한사람의 신념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함께할 때 인류문명의 발달과 세계인류 평화는 시작 될 것입니다"라며 사바세계의 갈등과 전쟁이 없는 불국 정토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초대교황 추대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 부처님탄생지인 네팔 룸비니와 한국에 세계불교 교황청을 설립하여 세계각국의 불교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향후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현재 룸비니에 세계불교교황청을 세우기로 네팔정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이번 대관식에 세계불교교황 석가산스님으로부터 석능인대종사가 교황청장 임명을 받고 임시 내각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날 세계불교교황 대관식법회에는 각국 대표와 많은 스님 불자들이 참석하였다. 네팔에서는 룸비니 장관 상카 포크렐, 국회의원 크리쉬나 고팔, 쉬레스비나 쉬레스타, 케삽 프나사드 포카렐, 룸비니 개발관광부 부회장 벤 마타야스님, 룸비니 시청 시장 마나몬 조다리, 룸비니불교협회회장 반테비베카난다, 세계불교승가재단 이사장 라젠드라식델, 세계불교승가재단 사무총장 선재람샬, 네팔체육협회 이사 라쥬 외 많은 불자들이 참석하여 이번 법회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또한 힌두교, 무슬림, 천주교 종교지도자 대표 및 인도대표단 외 8개국 대표단이 참석하였고, 한편 한국의 현각스님, 혜승스님, 법붕스님, 원산스님, 동담스님과 스리랑카의 나르다테로스님, 구나라타테로스님이 대승정으로 추대 받았다.

세계불교승가재단에서 수여하는 룸비니평화대상에는 한국의 마니스님, 해인스님, 보운스님이 선정되었다. 마니스님은 "룸비니평화대상은 저에게 큰 영광입니다. 남북분단이 되어있는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세계평화에 한 획을 긋게 될 것입니다. 세계평화가 이루어져 불국토가 꼭 이루어 지길 기원합니다"라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세계불교교황 대관식은 개회사에 이어 각 나라 고유의 불교의식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장엄하게 각 나라별 의식이 진행될때마다 대관식에 참석한 스님 및 불자들은 합장하며 세계불교발전을 기원하였다. 이번 행사는 2500년 동안 한번도 한적이 없는 유일한 행사이다.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 동산에서 세계 각국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세계불교교황의 추대는 불교사의 한 획을 그었다. 세계불교 발전과 원융화합의 중심이 될 불교교황 및 불교교황청의 행보에 큰 역할이 기대된다.

-세계불교교황 대관식 합동 취재단

戴 冠 辭 (대관사)

World Buddhism Pope Seak ka San



△ 세계불교 교황 석가산 성하

사랑하고 존경하는 地球村의 人類 여러분! 世界佛敎 佛子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국가와 민족이 설사 다르더라도 우리는 다 같은 인류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불자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환경과 풍습이 설사 다르더라도 우리는 다 같은 인류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불자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문화와 교육이 설사 다르더라도 우리는 다 같은 인류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불자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종교와 사상이 설사 다르더라도 우리는 다 같은 인류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불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지구촌 여러분! 세계불교 불자 여러분!

우리 모두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서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화합합시다. 우리 모두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서로서로 많이 사랑하고 존경합시다. 우리 모두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서로 서로 많이 감사하고 칭찬합시다.

본 세계불교 교황은 사바세계의 갈등과 전쟁이 없는 불국정토를 실현하기 위한 상징적으로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이 곳 네팔과 본 교황이 태어난 대한민국에 교황청을 설립하겠습니다. 본 세계불교 교황은 지금 이 시간부터 평화의 길 그 대장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평화의 길은 모든 인류의 노력이 없이는 성취 되지는 않으나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시다.

평화의 길은 하루 아침에 성취되지 않으나 지금 이 시간 세계불교 교황 대관식으로 부터 시작합시다. 모든 인류와 세계불교 불자 여러분에게 평화와 행복이 항상 함께 하기를 세계불교 교황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처님 정법 세계로 널리 펼치고, 세계불교중흥과 원융화합이 되는 기틀 마련



세르파 메인센타 사찰을 방문하여 진신사리 이운법회 후 기념촬영 △

네팔 행사 모습



△ 세계불교교황 대관식 행사장으로 입장하는 석가산 큰스님과 한국 대표단



△ 네팔 불교TV방송 뉴스에 나온 각국 대표단 스님들 모습



△ 한국스님과 각국 스님들이 불공을 드리고 있는 모습